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역자서문

최근 곳곳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사건이 터진 후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만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래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여전히 아이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번역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의 이론과 실천』은 이러한 현실에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현장을 모르는 행정기관이 만든 대책이 아닌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특히 피해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고민하며 만들어낸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지역안전지도를 만들고 어른들은 이를 지원하게 되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견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치안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상황을 대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사례와 해결방안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이 지역 치안에 관련된 관계자뿐만 아니라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보호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원래 본문에 실려 있는 주석은 각주로 나타냈고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역주를 달았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논문이 나오기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격려를 아껴주지 않았던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일과 정은주 선배와 사랑하는 아내 고민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6년 12월

김 동 균

국문초록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의 이론과 실천』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의 안전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서장을 포함하여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범죄 방지의 이론과 실천을 다루고 있는 서장과 1장, 2장을 번역하였다.

서장은 최근 일본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를 막기 위한 순찰과 지역안전지도의 중요함, 그리고 올바른 순찰 방법과 지역안전지도의 제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거쳐 온 과정과 이런 과정을 기반으로 범죄 방지를 위해 어떠한 이론과 법률들이 적용되고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장은 1장에서 말한 이론을 토대로 지역안전지도의 올바른 제작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지역안전지도의 사례들과 지역안전지도의 올바른 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지역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범죄예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차 례

역자서문

국문초록

서장-증보판 발행에 즈음하여	1
1) 들어가며	1
2) 범죄다발지역 순찰(Hot Spots Patrol)	2
3) 지역안전지도 제작	4
I 장 안심·안전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이론	9
1. 안전을 창조하기 위한 조건 - 원인론에서 기회론으로 전환	9
1) 높아지는 안전 확보의 요구	9
2) 범죄원인론의 한계	10
3) 범죄성이라는 마음의 그림자	11
2. 형벌의 존재 의미	13
1) 형벌을 중시하는 원인론	13
2) 무너진 교정신화	13
3) 형벌 역할의 변화	14
4) 매스미디어로 인한 오해	15
5) 형벌에 의존하지 않는 범죄 방지	16
6) 매스미디어의 부정확한 보도	17
7) 메건법의 등장 배경	19
8) 범죄자의 환경은 특수한가	19
3. 범죄기회론 - 범죄 방지에 필요한 3요소	21
1) 저항성으로 범죄 방지	21
2) 저항성의 의식측면	22
3) 영역성으로 침입방지	23

4) 영역성과 범죄율	25
5) 영역성의 의식측면	27
6) 학교의 영역성	29
7) 감시성으로 범죄 방지	30
8) 감시성의 의식측면	30
4. 의식을 중시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	32
1)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32
2) 파출소는 깨진 유리창 이론의 발상지	33
3) 뉴욕의 컴스탯(COMPSTAT)	34
4) 영국의 ‘범죄 및 질서위반법’	36
5)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테크닉	38
II 장 지역안전지도 제작의 실천	40
1. 아이들의 안전과 마을 만들기	40
1) 지역안전지도란	40
2. 아이들 스스로 만들게 하는 중요함	42
1) 저항성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42
2) 지역이라는 이름의 성(城)으로 지킨다	43
3. 지도 제작의 실천	45
1) 사전 학습	45
2) 마을 탐험	45
3) 지도 제작	47
4)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대책으로	49
5) 지역안전지도 제작 전문과정	49
6) 잘못된 제작 방법	50
7) 아이들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면	53
8) 바람직한 지도 제작 과정	54
9) 사건에서 얻는 교훈	55

서장-증보판 발행에 즈음하여

1) 들어가며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것은 2006년 3월입니다. 초판 발행 전 해인 2005년 11월에 히로시마 시(広島市)에서, 12월에는 도치기 현(栃木県)과 교토 부(京都府) 우지 시(宇治市)에서 아이들이 연이어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단숨에 고조되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도 비약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감을 충족할 만한 진전이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답은 ‘아니요’입니다.

분명 자율방범대의 수는 증가하였고 지역안전지도도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각지에서 이뤄지는 순찰은 범죄학에서 방법효과가 부정된 ‘난선 순찰’이고, 세계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다발지역 순찰’을 도입한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역안전지도의 경우는 제작 메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제작된 지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컨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그만큼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실천이 선행되고 있지만 이론부분은 전혀 실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시다만 ‘실천 없는 이론은 무력하고, 이론 없는 실천은 폭력’입니다.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 이론을 철저하게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본서(증보개정판)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증보판이라고는 하지만 초판의 본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판의 본문이 강연 녹취록이라 그 성격상 가필·수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당시의 문제의식과 분위기를 느끼거나 그 후의 이론과 실천의 진화 과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초판에서 설명하지 못한 ‘사기’와 ‘가택침입 절도’를 추가했습니다. 이 중 ‘가택침입 절도’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시바야마 히로키(柴山明輝) 씨에게 집필을 부탁드렸습니다. 또 글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순찰과 지역안전지도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최신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문과 함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2) 범죄다발지역 순찰(Hot Spots Patrol)

일본에서 순찰이라 하면 난선 순찰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난선 순찰이란 노선을 정해놓지 않고 순찰을 할 때마다 다른 노선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난선 순찰의 이점은 범죄자가 언제 어디에서 순찰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그 곳에 경찰이나 방범대의 순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범행을 단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착각만으로 범죄자는 범행을 포기할까요?

순찰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난선 순찰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험을 통해 난선 순찰에 방범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현재 난선 순찰은 인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난선 순찰은 왜 방범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범죄자는 순찰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해도 방범대가 나타났을 때 범죄를 멈추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빈집털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범죄자가 빈집털이를 성공시킬 수 있을만한 집을 찾고 있을 때 방범대와 딱 마주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범죄자는 아직 빈집털이를 할 집을 물색하는 단계일 뿐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방범대가 얼굴을 본다고 해도 그 상황만으로는 방범대가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전화로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난선 순찰은 그다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는 당당하게 안심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능숙한 범죄자일수록 빈집털이를 시작할 때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집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도로를 순찰하고 있는 사람이 빈집털이를 하는 순간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난선 순찰은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등장한 것이 범죄다발지역 순찰입니다. 이것은 범죄다발지역(HotSpot)에 중점을 둔 순찰입니다.

이 범죄다발지역 순찰도 많은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 실험들로 범죄다발지역 순찰은 방법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난선 순찰의 방법효과를 부정한 범죄학계도 범죄다발지역 순찰의 방법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범죄다발지역 순찰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분석한 하버드대학의 연구원 안소니 브라가(Anthony Braga)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순찰을 집중시킨다면 범죄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며 순찰을 그 지역에만 집중시켜도 “범죄가 주변지역으로 전이될 일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조지메이슨대학의 크리스토퍼 코퍼(Christopher Koper) 준교수는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범죄다발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은 15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5분까지는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방법효과가 높아지지만 그 이상 체류하게 되면 방법효과는 낮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코퍼곡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순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범죄다발지역 순찰은 일본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다발지역이 어디인지는 경찰이 제작한 ‘범죄발생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안전지도’를 제작하면 앞으로의 범죄다발지역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숙한 빈집털이범들은 차를 타고 표적으로 삼은 지역으로 가서 가장 먼저 작전본부를 정하고 그 곳에 차를 세워(이 곳이 범죄다발지역입니다) 그 후에 도보로 장소를 물색한다고 합니다. 빈집털이범들에게 장소물색 도중에 방법대원들과 만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이며 아직 범행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대가 빈집털이범들의 작전본부(범죄다발지역) 부근에 머무른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로상에서 우연히 만난 것과는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집을 방법대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빈집털이범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리스

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의 범행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하는 순찰은 자칫하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쉬운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들킨 범죄자는 매우 수준이 낮은 범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는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들키지 않을만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상한 사람의 발견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순찰은 수상한 사람 찾기가 아닌 문제점을 찾는 순찰입니다. 문제점을 찾는 방법은 지역안전지도 제작과 같기 때문에 (누구나/범인도) ‘들어가기 쉬운 장소’와 (누구에게도/범행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곳이 앞으로 범죄다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빈집털이를 예로 들자면 들어가기 쉽고 잘 보이지 않는 주차장이나 공터, 공원 등이 범죄다발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 그 곳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나 ‘잘 보이는 장소’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토론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론자의 범위는 방법대원만이 아니라 이웃지역의 주민, 학교 선생님, 지역기업의 임직원, 경찰관,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참가한다면 한층 효과적인 개선책이 나오겠지요. 대책이 정해지면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순찰을 하며 변화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단조로워 보이는 순찰도 범죄다발지역 순찰을 도입하면 심리학이나 사회학 지식이 담겨진 매우 심오한 순찰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심오한 순찰일수록 방법효과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지역안전지도 제작

여전히 아이들에게 방법부저를 주고 “큰소리로 도움을 청해라.”, “빨리 도망쳐라.”라고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아이들이 공격을 당한 이후의 일로 범죄는 이미 시작된 후입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기관리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크라이시스(Crisis) 관리’로 ‘리스크(Risk) 관리’는 아닙니다.¹⁾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리스크 관리’에 비해 공격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크라이시스 관리’로는 아이들을 구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크라이시스 관리’는 현 실상과는 맞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납치사건의 경우 과반수가 범인의 꼬임에 빠져 아이들이 스스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일본경찰청 ‘약취²⁾유괴사안 개요(略取誘拐事案の概要)']. 미야자키 츠토무사건(宮崎勤事件)³⁾(1988년~89년), 고베 사카키바라사건(神戸サカキバラ事件)⁴⁾(1997년), 나가사키(長崎) 남아유괴살해사건⁵⁾(2003년), 나라(奈良) 여아유괴살해사건⁶⁾(2004년), 고베 여아유괴살해사건⁷⁾(2014년) 모두가 꼬임에 빠져 유괴된 사례입니다. ‘크라이시스 관리’로는 이러한 사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신고를 하지 않아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대부분 범죄자의 꼬임에 빠져 피해를 당한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일본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크라이시스 관리’와 범죄현실은 괴리가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꼬임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수상한 사람을 주의해라.”,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라는 ‘사람’에게 주목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짜 수상한 사람은 방범홍보전단지에도 나오는 수상한 사람처럼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어른으로 위장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또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두세 마디 말을 나눈 것만으로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며칠 전에 공원에서 봤던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아는 사람

1) 역주,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가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기, 크라이시스는 이미 닥친 위기를 뜻함.
 2) 역주,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둠. 또는 그런 행위.
 3) 역주, 1988년부터 1989년까지 도쿄 도(東京都)와 사이타마 현(埼玉県)에서 발생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살인사건. 일본경찰청 공식명칭은 ‘경찰청 광역 중요지정 117호사건’이며 범인의 이름을 따서 ‘미야자키 사건’이나 ‘미야자키 츠토무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4) 역주, 1997년 효고 현(兵庫県) 고베 시(神戸市) 스마 구(須磨区)에서 발생한 당시 14세 중학생에 의한 연속 살인상해 사건.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5) 역주, 2003년 나가사키 현(長崎県) 나가사키 시(長崎市)에서 발생한 당시 13세 중학생에 의해 남자 어린이가 납치 되어 살해 된 사건.
 6) 역주, 2004년 나라 현(奈良県) 나라 시(奈良市)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납치 후 살해·유기 된 사건.
 7) 역주, 2014년 행방불명 된 고베 시(神戸市) 나구라(名倉) 초등학교 1학년 여자어린이가 납치 후 살해되어 토막시체로 발견 된 사건.

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누가 범죄를 꾸미고 있는지는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에 주목하고 있는 한 위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속이지 않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변환경⁸⁾’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주변환경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임수를 쓰지만 주변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환경에서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을 ‘주변환경 판단능력’이라고 합니다. 지역안전지도는 그야말로 이 ‘주변환경 판단능력’을 높이는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전지도는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를 풍경사진을 사용하여 해독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환경 판단, 즉 주변환경이 나타내는 메시지를 포착하는 요령은 ‘들어가기 쉽다’,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범죄기회론의 키워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안전지도 제작은 (누구나/범인도) ‘들어가기 쉬운 장소’와 (누구에게도/범행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차를 탄 유괴범이나 날치기범이 인도로 ‘들어가기 쉬운 장소’입니다. 양측에 높은 담이 쳐진 도로는 집 안에서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은 공원은 누구나 ‘들어가기 쉬운 장소’입니다. 울창하게 자란 수풀로 둘러싸인 공원은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도 ‘잘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도로나 건물옥상은 흰히 뿔려 있어 언뜻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주위의 시선이 닿지 않으므로 역시 ‘잘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지역안전지도 제작은 이런 물리적으로 위험한 장소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험한 장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서, 공공기물의 파손, 쓰레기투기, 방치된 차량, 폐가가 많은 거리와 같이 무질서가 만연한 장소는 범죄자가 경계심을 갖지 않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쉬운 장소’입니다. 또 그러한 장소는 지역주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 앞 광장이나 쇼핑몰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뜻 안전하다고 생

8) 역주, 주변환경의 원문 ‘景色’는 통상 한국어로 경치나, 풍경이라고 번역되지만 이번 논문번역에서는 글의 흐름과 맞지 않아 주변환경, 경관으로 번역했다.

각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외적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상태를 눈치 채기 힘들다. 또한 눈치를 चेदा 해도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조 활동을 꺼리게 되므로(방관자효과⁹⁾) 이런 장소 역시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소’가 됩니다.

위와 같이 지역안전지도 제작의 목적은 ‘주변환경 판단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고 위험을 사전에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속뜻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사람 만들기’이지 지도 제작이라는 ‘물건 만들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평소 지도를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지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경관을 보면서 걷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일상적인 생활공간은 이차원인 지도가 아니라 삼차원인 경관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도를 보고 범행 장소를 찾지 않습니다. 주변환경을 보면서 범행의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도 지도가 아닌 주변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위험예측이란, 주변환경을 본 것만으로 그 곳이 범죄자가 좋아할만한 장소인지 아닌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는 ‘~마을 ~번지’가 아니라 범죄자가 좋아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주변환경만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처음 가본 장소라도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전지도를 제작할 때 참가자에게 주변의 환경을 보게 하는 거리걷기[필드워크(Field Work)]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 제작은 거리 걷기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도라는 성과물을 내게 하므로 참가자(특히 어린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촬영한 사진(=주변환경의 재현)과 함께 촬영한 이유(왜 위험한가, 왜 안전한가)를 앞서 말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적습니다. 지도로서의 정확성은 요구

9) 역주,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어 오히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덜 돕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구경꾼 효과’라고도 한다.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사진과 코멘트의 조합입니다(=주변환경 판단).

수상한 사람(위험한 사람)은 본 것만으로 알 수 없지만 범죄자가 좋아할 만한 주변환경(위험한 장소)은 본 것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쉽다’,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키워드가 위험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 그 장소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범죄자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예측 가능할 경우 그 곳을 피해서 가거나 그 곳을 지나가게 된다고 해도 경계심을 갖고 간다면 범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장소를 간파하는 ‘주변환경 판단능력’이야말로 방법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릿쇼(立正)대학 교수·사회학박사
고미야 노부오(小宮信夫)

I 장 안심·안전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이론

1. 안전을 창조하기 위한 조건 - 원인론에서 기회론으로 전환

1) 높아지는 안전 확보의 요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이론과 실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라는 것은 과연 어떤 범죄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는 범죄기회론이라는 범죄학이론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생활안전조례를 만들었다든지 혹은 지자체에서 새롭게 안전·안심을 위한 섹션을 만들었다고 하는 곳에서도 범죄기회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기회론이라는 말조차 모르면서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라는 기초를 내걸고 있는 곳에서는 내실 부족이 명백하므로 얼마 못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 흐름을 보면 어떤 지역에서건 “안전한 거리를 만듭시다.,” “혹은 치안대책을 실시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심지역이나 산간지역에서도 주민의 의식조사를 했을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범죄피해를 막고자 하는 치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쿄(東京)와 같은 도심뿐만이 아니라 과소화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순위로 범죄 예방이라는 항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에 맞춰 이곳저곳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전문 섹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기회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 지역에서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듭시다.,” “이웃 지역에서 안전·안심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만듭시다.,” 혹은 “이웃 학교에서 지역안전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듭시다.”라는 발상은 가당치 않다고나 할까 실효성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때로는 해가 되는 시책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어떠한 범죄학 이론에 근거하여 시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입니다. 그 근본이 되는 이론이 범죄기회론입니다.

이것과 매우 대조적인 것이 범죄원인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안전·안심 지역을 만들 때 실패에 대한 사례의 대부분은 범죄원인론에 근거를 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를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범죄원인론에서 범죄기회론으로의 전환이라는 이 발상을 우선 확실하게 해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범죄원인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범죄원인론의 한계

범죄원인론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범죄에는 그 원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후에 그것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는 안전해질 것이라는 발상입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된다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에서도 20년 정도 전까지는 범죄원인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범죄원인론에서 말하는 범죄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격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범죄자가 일으키는 것으로 나쁜 것은 범죄자이며 그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자의 인격이나 이상 인격, 범죄성으로 이어지는 성격이야말로 범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 범죄원인론의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大阪)의 이케다초등학교사건(池田小学校事件)¹⁰⁾이 발생했을 때 인격장애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고베의 사카키바라 사건 때에는 행위장

10) 역주, 2001년 오사카 교육대학부속 이케다 초등학교에 흉기를 든 남자가 침입하여 학생들을 습격한 사건으로 학생 8명이 살해당하고 교사와 학생 15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

에11)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런 것들을 범죄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범죄자의 인격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 개념과 같이 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어떠한 규명도 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인격장애나 행동장애는 미국의 정신의학회가 만든 용어로 이에 대한 진단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진단 매뉴얼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몇 가지에 해당되면 인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신과 의사든 매뉴얼에 따른 진단을 한다는 의미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체크리스트의 내용 자체가 매우 애매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 체크리스트를 실시해 봤는데 10명 중 1명 정도가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평가기준이 애매한 진단 매뉴얼입니다.

3) 범죄성이라는 마음의 그림자

실제로 ‘~장애’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산만한 아이가 있을 때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면 학습장애, 발달장애 등 등 다양한 구실을 붙여 무슨 무슨 장애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 미국에서 건너온 명칭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에서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을 패섬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정신과 의사, 범죄심리학자, 카운슬러, 테라피스트¹²⁾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환자를 만들어야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미국의 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일본 역시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여러 사람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여도 모두 일치하지 않은 감정이 나옵니다.

11) 역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행위 장애라 하며 여기에는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이고,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2) 역주, 각종 치료사 또는 치료학자를 테라피스트라고 한다. 음악 치료(뮤직 테라피)를 비롯, 언어 치료(스피치 테라피)·오락 치료·무용 치료·미술 치료·사이코드라마 치료·운동 처방 등과 같이 약이나 주사 등을 이용치 않는 새롭고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한다.

확립된 개념이라면 어떤 사람이 감정을 하든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겠지만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결론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러한 범죄원인론이 주류였지만 좀처럼 범죄를 감소시킬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범죄대책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투입해야 할 곳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범죄원인론에 기반을 둔 대책에 투입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2. 형벌의 존재 의의

1) 형벌을 중시하는 원인론

범죄원인론 대책의 기본적인 패턴은 범죄자의 인격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우선 범죄자를 붙잡게 되면 교도소로 보내고 교도소에서 교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정’이라는 단어는 매우 아름다운 단어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인격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성이 있는 인격을 바꾸는 것을 교정이라고 부르는데 교정이 성공한 단계에서 사회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이것이 범죄원인론의 전형적인 범죄 대책 패턴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교도소에 투입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엄청난 수의 정신과 의사와 범죄심리학자를 고용했고 아침부터 밤까지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범죄가 줄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납세자들도 이런 부분을 알아차리고 ‘제대로 세금을 쓰고 있는가?’, ‘쓸데없는 데다 쓰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정책당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부당국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떠한 교정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여 효과가 확인된 프로그램에 세금을 투입하게 되면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A프로그램, B프로그램, C프로그램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각각의 수형자(受刑者)에게 진행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받은 수형자가 가장 재범률이 낮은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A프로그램, B프로그램, C프로그램에 참가한 수형자가 어떠한 교정프로그램에도 참가하지 않은 수형자와 동일한 재범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세금을 교정프로그램에 사용하면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교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당국도 드디어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 무너진 교정신화

그때까지는 교정에 대한 일종의 신화가 있어서 정신과 의사나 범죄심리학자는

범죄자를 교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화시킬 수 있다는 형벌관과 그와 같은 형벌에 대한 사고방식을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공리주의적 형벌관에서 형벌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범죄자 교화, 범죄 방지라는 목적 때문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한다는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형벌관에서 형벌이 왜 존재하는지 묻는다면 그것은 범죄를 막기 위함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줄곧 이 공리주의적 형벌관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범죄자를 없애고 범죄자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형벌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까지 조금도 범죄자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즉 형벌의 목적이 조금도 달성되지 않은 것이 명백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범죄자의 마음을 치료시키는 것이 형벌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었고 이 공리주의적 형벌관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3) 형벌 역할의 변화

이때 등장한 것이 응보주의적 형벌관입니다. 응보주의적 형벌관은 어떤 것을 위해 이것이 존재한다는 목적지향적인 공리주의와는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 형벌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이고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즉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응보주의적인 형벌관이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형벌관은 공리주의에서 응보주의로 약 20년 정도 전부터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벌로 범죄를 막고 범죄자의 마음을 치료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가 존재하는 이상 형벌은 존재한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공리주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정반대의 발상입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장래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지금 형벌이 존재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이지만 응보주의적 형벌관은 이와 반대로 회고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의 형벌이 있고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이 주어진다는 발상입니다.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1대 1의 관계가 됩니다. 즉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있다, 작은 범죄이기 때문에 작은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이 응보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공리주의적인 형벌관은 장래 다시금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형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원인론에 입각하여 범죄자에게 주목하고 교정이 이뤄질 때까지 형벌이 이어지고 교정이 되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형벌이 끝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소년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형의 기간을 정할 것인가를 비교했을 때, 응보주의적 형벌관인 경우 절도와 살인 중 살인이 더욱 무거운 죄이므로 살인이 만약 최고 10년이라면 절도는 살인보다 가볍기 때문에 1년을 선고한다라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형벌관은 장래 다시금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형벌이 존재한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형벌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절도를 범한 소년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감화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의 태도도 나쁘다면 이 사람은 출소시키더라도 또 재범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기가 점점 연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벌은 장래에 범죄를 막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사회로 되돌려 보낼 때에는 반드시 저 사람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단계까지 교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공리주의적 발상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전 유럽이나 미국의 법체계는 부정기주의(不定期主義), 즉 형기가 처음부터 결정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의 소년법 등은 그 부정기형의 영향이 남아있어 미리 결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면 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붙잡아놓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형벌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하지만 응보주의는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저지른 범죄와 1대 1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얼마만큼의 형기가 주어질지 예측가능하다는 것이 응보주의적 형벌관의 특징입니다.

4) 매스미디어로 인한 오해

사실 유럽과 미국이 응보주의적 형벌관으로 전환했을 때 일본의 언론은 이것을 ‘엄벌화’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벌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응보주의적 형벌관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진의입니다. 부정기형의 관점에서 형기가 짧은 경우 분명 응보주의 쪽이 엄벌화일지도 모르겠지만 형기가 길어지는 경우 공리주의적 형벌관의 관점에서 앞서 예를 든 절도소년은 교도소에서 태도가 나쁘다고 하여 5년, 10년으로 형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걸까요. 요컨대 공리주의적 형벌관에서는 절도를 한 단계에서 그 소년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형기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교도소에 들어간 후의 태도에 따라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인지 정해지기 때문에 형기를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형기의 길이를 알 수 없고 언제까지나 교도소에 있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공리주의적 형벌관 쪽이 더욱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엄벌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방식은 현지에서는 ‘공평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캠브리지대학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미국을 응보주의적 형벌관으로 전환시켰던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는데 ‘공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즉 절도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든 아니든 절도는 절도이므로 누구에게나 같은 형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평화’라는 것입니다. 교도소장 혹은 담당직원의 재량으로 형기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쪽이 오히려 불공평하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1대 1의 관계가 됨을 미리 알리는 것이 공평하다고 그 선생님은 주장하며 그것을 정부에 도입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공평화가 된 것을 일본의 언론은 엄벌화가 되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5) 형벌에 의존하지 않는 범죄 방지

이처럼 교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공리주의가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공리주의적 형벌관은 범죄를 막기 위해 지금의 형벌이 있다는 발상이지만 그것이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형벌로는 범죄 방지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벌로 범죄 방지를 기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범죄가 늘어나는 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이 ‘범죄기회론’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범죄기회론이 존재한 것은 아니며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범죄

원인론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 내의 형벌을 통한 교정으로 범죄를 방지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범죄 방지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단계에서 범죄기회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는다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벌은 이 과정의 뒤쪽에 있지만 좀 더 형벌을 앞쪽에 놓아 처음부터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기회론은 범죄자에게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범죄의 기회라는 부분입니다. 즉 아무리 범죄가 일어날 만한 원인이 있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눈앞에 범죄를 실행할 만한 기회나 범죄를 실행할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범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기회가 없다면 범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발상을 전환하여 범죄의 원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혹은 지역이 가능한 한 범죄의 기회를 줄이고 이를 통해 범죄를 막아보려고 생각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까지 전혀 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없었던 유럽과 미국이었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예외 없이 범죄가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그 범죄기회론은 유효하다는 생각이 유럽과 미국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6) 매스미디어의 부정확한 보도

그러나 일본은 아쉽게도 여태까지 범죄원인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5년 야마구치 현(山口県)에서 일어난 폭탄사건¹³⁾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폭탄을 교실에 던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언론은 학교 측에 “어떤 학생이 었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아이는 지각과 결석 그리고 조퇴 한 번 없는 무척 성실한 아이였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치 그 성실한 성격이 범죄의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퍼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성격이 범죄의 원인이었다면 학교는 ‘더 무단으로 결석해라. 더 지각해라’라고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바보 같

13) 역주, 2005년 야마구치 현(山口県) 히카리 시(光市) 히카리고등학교에서 같은 학교 3학년 남학생이 사제 폭발물을 던져 학생 1명이 중상, 52명이 경상을 입은 사건.

은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하나의 사건만 보고 우습게도 ‘성실한 성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버리면 이런 생각처럼 여론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범죄자의 성격이 원인이라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이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령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도 그 성격을 치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변태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성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성격을 고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성범죄자의 재범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일본의 언론은 범죄원인론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전후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내보낼 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교도소에서는 성범죄자의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이냐 말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감옥법에는 수형자를 강제할 수 있거나 억지로 의무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는 노동이나 교도작업 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치행정이란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률에 없는 것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왜 하지 않았나.”라고 질책해도 범무성은 곤란해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노동과 교도작업을 시키지 않고 성범죄자에게는 성범죄자에게 맞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잘된 일이겠지요. 개선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경우 이런 교정프로그램은 이미 40년 정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교도작업이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성범죄자에게는 성범죄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었고 실제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줄지 않아 곤란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메건법(Megan’s law)¹⁴⁾’입니다.

14) 역주, 미국의 성범죄자 관련법으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적이 있는 자의 이름·나이·주소 등을 공개하고, 성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알려 주는 법이다. 1994년 뉴저지(New Jersey) 주에서 일어난 7세 여자 성폭행살해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7) 메건법의 등장 배경

메건법이란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주민에게도 고지하라는 법입니다. 메건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도소에 맡기고 교도소 안에서 철저히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정이 성공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한다면 메건법 같은 것은 애당초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기대할 수 없다.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소할 때 성범죄자는 교정되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메건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메건법 제정이 진행되었지만 일본의 언론은 한쪽에선 메건법의 정보를 내보내고 한쪽에선 교도소의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내보내는 등 병렬적으로 전후관계를 무시한 보도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그것을 보고 ‘이것 저것 다 해보자. 그렇군 선택지가 적었던 것 뿐인가.’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건법의 제정에는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있었던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미국의 방식을 따라하여 메건법을 일본에도 도입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논의에 앞서 적어도 그것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범죄를 일으킨 원인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아쉽게도 지금의 과학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러한 인격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치료할 약이나 방법, 프로그램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유럽이나 미국에서 범죄원인론은 한계가 있다고 20년 전에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8) 범죄자의 환경은 특수한가

또 한 가지 범죄원인론에서 범죄자의 인격과 더불어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범죄자가 처한 환경이란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안 좋아서, 학교가 나빠서, 사회가 나빠서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마구치 현의 폭탄사건 때도 언론은 학교에 대해 “따돌림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라고 추궁했습니다. 교장은 “알아보니 따돌림 비슷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원인은 따

돌림이었다고 다시 한 번 세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사실 일까요. 만일 따돌림이 범죄의 원인이라면 일본에 더 많은 범죄자가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에나 따돌림과 같은 것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나 지역에서도 따돌림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따돌림을 당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언론은 중장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리해고를 당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리해고가 범죄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면 그렇지 않은 쪽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범죄의 원인을 발견하고 싶다면 왜 따돌림을 당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것인가와 그 두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혹은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의 보도로 알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의 결과론일 뿐입니다. 사건을 돌이켜보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다보면 어떤 가정이나 학교든 문제점 한 두 가지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고서는 이것이 원인이다, 저것이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령 백번 양보해서 따돌림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쳐도 그 따돌림을 현실에서 없앨 수 있을까요?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따돌림도 없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범죄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 일어날 범죄, 모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30년, 40년, 50년이나 기다려 줄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것에 행정은 답해야 합니다. “30년 있으면 따돌림이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처럼 ‘내일의 범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등장한 것이 범죄기회론입니다.

3. 범죄기회론 - 범죄 방지에 필요한 3요소

1) 저항성으로 범죄 방지

범죄자를 교화시키지 않아도 범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가정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어도 범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기회론입니다. 이를 위해 생각해봐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범죄의 기회를 줄일 수 있는가입니다. 이 물음의 답이 바로 ‘범죄 방지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저항성’입니다. 범죄 방지에 필요한 요소 중 그 첫 번째인 저항성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최종적으로 타깃에 접근해서 ‘자 이제 범죄를 저질러 볼까?’라고 생각할 때 그 범죄자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타깃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려 접근합니다. 그러나 타깃에 접근하기 직전에 그 범죄 의지를 없애버리는 것을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원 도어 투 락(One door Two lock)’ 이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집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달자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도둑이 집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현관 앞까지 와서 들어가려고 한 순간 ‘응? 잠금장치가 두 개잖아, 이거 평소보다 시간이 배는 들겠는데 이 집 터는 것은 관두자. 다른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현관 앞이라는 범죄 타깃에 도달하기 직전에 범죄의지를 없앴습니다. 이런 힘을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자전거에 자물쇠를 다는 것 역시 저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은행이나 우체국, 역 등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직접 창구 담당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투명한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저항성의 사례입니다. 택시에 탔을 때 택시기사와 접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에서도 택시기사의 뒤에 보호벽이 설치된 차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 조수석까지 보호벽이 이어져 있지는 않지만 보호벽이 매년 넓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날치기 방지를 위해서 자전거 앞 바구니에 그물을 씌웁니다. 이것 역시 저항성의 사례입니다. 날치기의 주요 타깃은 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성인데 전형적

인 범죄 수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뒤쪽으로 접근해 자전거에 타고 있는 여성의 옆으로 붙은 순간 앞 바구니에 들어있는 핸드백이나 가방을 순식간에 낚아채고 도주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앞 바구니에 커버를 씌우거나 혹은 그물을 씌워 놓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접근하여 ‘자 훔쳐볼까?’라고 생각하고 집으려 했지만 커버가 있어서 핸드백에 손이 닿지 않거나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이번은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범죄를 사전에 막는 힘을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방범부저를 갖고 다니게 하는 것도 저항성입니다. ‘저 애를 납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접근하여 손을 잡으려고 한 순간에 방범부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잡았을 때 이게 올리면 낭패군. 안 되겠다, 이 아이 말고 다른 아이한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런 힘을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2) 저항성의 의식측면

다만 저항성은 위와 같은 물리적인 부분 즉 여러 가지 물건이나 상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런 물리적인 부분에 인간의 의식이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방범기능을 가진 상품이나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을 원 도어 투 락으로 만들어 놓아도 ‘요 앞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올 동안은 열어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열어둔다거나 혹은 근처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 오는 동안 ‘설마 20분 사이에 도둑이 들겠어.’라고 생각하여 열어둔 채로 다닌다면 언젠가는 범죄자의 침입을 허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물쇠를 하지 않는 것이 빈집털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매우 많은데 이런 지역은 원 도어 투 락이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물쇠를 잠급시다.’라는 의식을 갖는 데서 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치기 방지용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사례는 실제로 오사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사카는 일본에서 날치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무료로 방지용 그물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이 경찰

서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핸드백을 날치기 당했어요.”라고 하자 “이상하군요. 이 주변은 많은 분들에게 무료로 날치기 방지용 그물을 나눠주는데 사용하지 않았나요?”라고 경찰이 말을 하니 “사용 했어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썰다면 날치기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경찰이 말하고 자세한 사정을 잘 들어보니 분명 그 여성은 자신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 그물을 씌웠습니다. 씌우기는 했는데 핸드백을 그물 위에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이러한 방법으로는 날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의식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범부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갖고 있었다면 방지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항상 지니고 다닐까요? 30~40%의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학교가 있다면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은 10~20%로 대부분은 집에 놓고 다닙니다. 학교에 갖고 다닌다고 해도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에게 보이지 않고 여차할 때 꺼낼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항성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 방지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인 저항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항성까지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일본은 아직 범죄원인론이 주류라고 말씀드렸는데 범죄원인론에서도 저항성까지는 도달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저항성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죄 방지에 필요한 요소가 있지만 범죄원인론으로는 두, 세 번째에 대한 발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3) 영역성으로 침입방지

범죄원인론은 범죄자에 주목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격이나 환경 등 판단기준을 범죄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자와 일반주민의 관계는 항상 범죄자 대 주민이라는 1대1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죄부저든 날치기방지용 그물이든 원 도어 투 락이든 모두 범죄자와 1대 1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개인 스스로 지키고 막으라

는 방식입니다. 1대 1이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자에게 당하는 경우가 생겨버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최근 프로범죄자집단은 3명, 4명이 함께 합니다. 3대 1, 4대 1의 상황에서 일반주민은 범죄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린이인 경우 범죄자와 1대 1 상황에 놓인다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장소를 이용하여 지키고 막는다면 혹은 지역에서 지키고 막는 방법을 쓴다면 범죄자와 일반주민의 관계는 항상 1대 수백, 1대 수천의 관계가 됩니다. 절대로 범죄자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구축하려면 범죄자에게 주목하는 범죠휘인론이 아닌 장소에 주목하는 범죠휘인론이 채용되어야 합니다.

또 장소를 이용하거나 혹은 지역에서 막거나 지키는 방법이 범죠휘의 행동 패턴에 대응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범죠휘가 범죠휘를 저지를 때 범죠휘가 처음부터 갑자기 타깃에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범죠휘는 우선 가장 먼저 장소를 선정합니다. 혹은 지역을 선정합니다. 우선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한 후 비로소 전술적으로 특정인, 특정한 집, 특정한 차 특정한 어린이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범죠휘가 노릴 수 없는 장소와 선택하지 못 하는 지역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범죠휘 방지에 필요한 요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범죠휘 방지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를 ‘영역성’이라고 합니다. 영역성은 최종적인 타깃의 가장 먼 곳에서 범죠휘의 위협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타깃을 둘러싼 가장 먼 곳에서 범죠휘의 위협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해 놓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범죠휘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영역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명확히 구역을 나누고 경계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구획성’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장벽을 치는 것으로 ‘이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표시입니다.

가드레일을 예로 들자면 가드레일의 안측에서는 범죠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치기도 일어나지 않고 어린이 납치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드레일에 의해 인도의 영역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죠휘가 본다면 매우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것을 구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출입문은 닫아두자는 것도 이 구획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사카의 이케다 초등학교사건 당시에는 출입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범인의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범인은 재판 중 법정에서 “문이 닫혔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언론은 범죄원인론의 입장에서 범인의 인격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인격장애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원인은 단순히 문이 열렸는가 닫혔는가 그 차이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공원은 어떻습니까? 구획성이 높을까요? 아쉽게도 낮은 공원이 많습니다. 구획성이 낮다, 즉 어디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디로든지 도망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원에서는 범죄자가 타깃이 될 만한 어린이를 발견해도 일부러 입구를 통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썩 하고 외부로 한 바퀴 돌아본 후 가장 가까운 통로로 슬쩍 들어가서 어떠한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다시 슬쩍 가장 가까운 통로로 도망갑니다. 어린이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어른들이 달려온다고 해도 만약 그 어른이 동쪽에서 온다면 서쪽으로 혹은 북쪽이나 남쪽으로 도망치면 그만입니다. 어디로든지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구획성을 높여 출입구를 정해 놓는다면 표적이 될 수 있는 어린이를 발견한다고 해도 일부러 입구로 들어가 먼 거리를 걸어서 어린이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하며 “도와주세요.”라는 소리에 어른들이 달려오면 또 일부러 출구까지 가야만 도망칠 수 있습니다. 붙잡힐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이런 공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4) 영역성과 범죄율

이러한 구획성은 가드레일이나 학교와 같은 좁은 범위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로도 응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철길에 신칸센(新幹線)이 달리고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고 교량이 놓여진 지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범죄가 늘어납니다. 아오모리 현(青森県)에서 가장 범죄상황이 심각한 곳은 하치노헤(八戸)입니다. 이곳까지 신칸센이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 히로사키(弘前) 쪽에 사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던데 히로사키는 아직 범죄로 인한 피해는 크지는 않습니다. 아오모리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오모리 시까지 신칸센이 다니기 시작하면 아오모리시도 범죄가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코쿠(四国)도 예전에는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놓이면서 범죄상황인 혼슈(本州)와 비슷해졌습니다. 도쿠시마 현(徳島県)의 범죄발생률을 보면 아카시해협대교(明石海峡大橋)가 개통된 후 5년간 범죄발생률이 1.5배 증가하였습니다. 영역성이 감소하자 범죄자의 출입이 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 어느 TV방송 취재로 지바 현(千葉県)에 가게 되었습니다. ‘표적이 된 단지’라는 곳의 취재였는데 그 곳에서는 다섯 집 중 세 집이 빈집털이에게 털렸다고 합니다. 왜 이 단지가 표적이 되었을까요?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제가 현장을 가보니 단번에 이곳은 표적이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 이곳은 양측에 고속도로의 나들목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측 나들목으로 들어와 좌측으로 도망갈 구멍이 있는데다 반대쪽으로 들어와도 우측으로 나갈 수 있게 양측이 나들목으로 되어 마치 샌드위치처럼 형성된 단지였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자신의 집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해도 그 단지 자체가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구획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간선도로는 애당초 구획성이 낮은 곳으로 간선도로에서 생활도로로 들어오는 길이 많거나 간선도로에서 생활도로로 들어오는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장소도 구획성이 낮다고 합니다. 자주 표적이 되는 곳은 간선도로에서 한 블록 뒤쪽으로 진입해야 하는 뒷길들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간선도로로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간선도로에서 생활도로로 진입하는 도로를 한정짓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구를 한정지어 놓으면 구획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봉쇄시켜버리면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동 가능한 도로용 화분으로 막아 놓거나 혹은 떼어낼 수 있는 차량진입 규제봉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은 과속방지턱입니다. 즉 도로상에 ‘턱’을 만들어 놓으면 진입할 때도 차가 덜컹거리게 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려 할 때도 간선도로로 빠져나갈 때 감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을 구획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선도로에서 생활도로로 들어오는 길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부터 이런 곳은 범죄자가 노리지도 않고 표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영

국에서는 일부러 주택지 안에 인공적으로 강을 만들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5) 영역성의 의식측면

이 영역성이라는 개념도 구획성이라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간의 의식이라는 부분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구역의식’¹⁵⁾이라고 합니다. 구역의식은 ‘범죄자의 침입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의식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는 그다지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진 않지만 동물과 같은 경우 어떤 동물이나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가 전신주에 소변을 보는 것은 개의 구역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그룹이 여기저기에 자신들의 그룹이름을 낙서해 놓는 것 또한 이 비행청소년 그룹의 구역의식입니다. 여러분 역시 구역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 첫 번째 줄에 앉아계신 분, 본인 좌석에 반듯하게 앉아 계시지만 다른 좌석의 자료가 앉은 자리까지 튀어나온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군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역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구역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역의식이 없다면 범죄자에게 간단히 침입을 당하게 되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이런 동물적인 본능이 충분히 몸에 익은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영화관에 갔을 때 좌석이 비어 있는 경우 옆 좌석을 하나 비워두고 앉을 것입니다. 전철에 탔을 때 자리가 비어 있다면 옆 좌석 하나를 비우고 앉을 것입니다. 텅 빈 전철에서 맨 구석자리에 앉았을 때 다음에 탄 사람이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옆자리에 앉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든다면 구역의식이 있는 것이고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구역의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역의식이 있는 편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이 구역의식이 저하되어 있거나 퇴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얼마 전 밤 10시쯤 됐을까요. 여중생 2명이

15) 역주, 원문의 나와바리(縄張り)를 구역으로 표시했는데, 일본에서는 조직폭력단, 소위 말하는 야쿠자 그룹이 자기의 지배 영역을 나와바리라고 말한다.

전철에 타고 재잘재잘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두 좌석 정도 떨어진 곳에 술에 취한 중년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이내 잠에 폭 빠져버리고는 전철의 긴 의자에 털썩 쓰러진 채 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성의 머리가 여중생의 허벅지에 부딪혔습니다. 치마로 된 교복을 입고 있어서 맨살에 머리가 닿았던 것입니다. 여중생은 그것을 느끼고는 재잘재잘 거리며 “응? 뭐가 닿았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후 그 여중생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재잘재잘 거리며 “응? 뭐가 닿았네.”라고 수다를 떨고 있을 뿐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의 머리가 닿은 채로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구역의식이 없다는 것이며 이 여중생은 피해를 당하기 쉬운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획성이 물리적인 장벽이라고 한다면 구역의식은 보이지 않는 장벽 혹은 심리적인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장벽은 보통사람이라면 좀처럼 느끼기 어렵지만 범죄자의 경우에는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장벽을 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중생은 아마도 자기 방에 있는 것처럼 전철에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적인 장벽을 쳐놓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은 전철 안에서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화장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자신의 방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입니다. 자신의 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방문도 있고 집이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등 물리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는 물리적인 장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벽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막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피해를 입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학교의 문을 닫아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사이에는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열어놓으면 구획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일 이 때 교문에 교직원이 서 있다면 이것이 구역의식의 메시지가 되어 문을 닫아놓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영역성이 유지됩니다.

6) 학교의 영역성

구역의식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문에 ‘외부인 출입 시 반드시 행정실을 경유해 주십시오.’라는 표지를 하는 것이 구역의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케다초등학교사건 이후 확실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러한 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아무리 작은 표지라고 해도 잠재적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 표지에 눈이 가게 될 것입니다. 표지를 본다고 해도 딱히 특별하게 게시된 것이 없다면 들어가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안에 들어가서 만약 교직원에게 발각된다 해도 “그런 게시물이 있었나요?”라거나 “행정실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찾지 못했어요.”라는 변명이 통할 것인지 아닌지를 교문이라는 단계에서 판단하여 변명이 통할 거라는 판단이 서면 들어갈 것입니다. 즉 게시는 그저 해놓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에게 변명을 허용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게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안하고 있는 것은 교문에서 행정실까지 길을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보면 외과나 내과 복도에 빨간색이나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문에서 행정실까지 바닥에 길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역의식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해 두면 그렇게 간단히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보통의 외부인이라면 그 표시를 준수하며 행정실로 갈 것이기 때문에 표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획성이란 개념입니다. 표시를 따라 걸으라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본에서 이러한 방식을 쓰는 학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며 행정실로 향하여도 어떠한 위화감도 느낄 수가 없고 부자연스럽지도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침입을 당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교 내부를 외부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장소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는 것이 구획성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범죄 방지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인 영역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 감시성으로 범죄 방지

마지막으로 남은 범죄 방지에 필요한 세 번째 요소를 ‘감시성’이라고 합니다. 감시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세력권 내에 범죄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범죄자의 행동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행동을 철저히 추적할 수 있다면 범죄자는 그리 간단하게 최종적인 목표까지는 다가가지 못 할 것입니다. 결국 목표에 다가가지 못한 채 범죄를 실행하지 못하고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힘을 감시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인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없애고 가시성을 높여야 합니다.

앞서 가드레일의 안쪽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드레일에 의해서 인도의 영역성이 높아져 침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도로의 양측에 있는 집 담장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장이 높아서 집안에서 창문으로 도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시성이 낮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가드레일을 돌파해 들어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는 가드레일을 돌파하여 들어와도 일단은 잘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담장이 낮아 집안에서 창문으로 도로가 잘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태라면 가드레일을 넘은 순간에 그 장면이 발각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범죄자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사각지대’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입니다.

앞서서 공원은 어디에서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출입구를 한정시켜 놓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을 전부 콘크리트 벽으로 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나무울타리로 주변을 둘러 쌓아버린다면 분명 이로 인해서 영역성은 높아지겠지만 도로에서 공원 안쪽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감시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함없이 그 공원은 위험한 장소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보이지 않는 곳을 없애고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8) 감시성의 의식측면

이 감시성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식측면 즉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중요합니

다. 그것을 주인의식이라고 합니다. 주인의식은 어떤 장소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의식입니다. ‘관계없다’가 아니라 자신이 관계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면 주인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가시성이 좋은 곳을 많이 만들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없거나 빠뜨리게 되어버립니다. 통찰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주인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는 감시성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사람이 많다면 그로 인해 사각지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들 보고도 못 본 체를 한다면 어떨습니까? 그곳이 정말 감시성이 높은 장소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 감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방범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방범카메라가 설치되면 분명 사각지대는 적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카메라를 달고 ‘아 이제 우리지역은 이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그때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지역의 활동을 단번에 멈춰버리면 이로 인해서 지역의 유대가 약해져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인의식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카메라로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플러스 효과가 발생한다 해도 주인의식 저하라는 마이너스 효과도 발생하여 마이너스의 폭이 더 큰 경우에는 도리어 카메라를 달아서 감시성이 낮아졌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카메라라는 기계의 눈의 활용여부를 떠나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의식을 중시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

1)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이처럼 영역성이나 감시성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구역의식과 주인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역의식과 주인의식을 중시하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퇴기회론의 이론 중 하나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뉴욕에서 도입되어 뉴욕의 범죄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 전역과 유럽으로도 확대되어 선진국의 범죄대책의 중심적인 이론으로 자리잡은 것이 바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유리창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돌을 던져 쨍그랑하고 유리창이 한 장 깨진 것입니다. 우선 그 단계에서는 ‘아 유리창이 깨졌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겠죠.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방치된다면 어떨까요? 범죄자는 그것을 보고 ‘뭐야 이 학교 선생들은 자기 학교에 관심이 없구만. 관심이 있다면 바로 수리했을 텐데. 이게 계속 방치됐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도 이 학교에 관심이 없군. 관심이 있다면 학교에 가서 선생들에게 “저 유리창을 빨리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했을 텐데. 고치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말하지 않은 것 같군. 이 지역 주민도 학교에 관심이 없는 것이야.’라고 범죄자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 한밤 중 몰래 들어와 컴퓨터나 약품을 훔쳐도 범죄자는 ‘아마 들키지 않을 거야. 들킨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고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여 이 학교를 표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이러한 학교의 깨진 유리창과 같은 조그만 틈을 철저히 처음 단계에서부터 수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쁜 방향으로 점차 견잡을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을 범죄를 낳는 장소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징적인 현상은 다른 곳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낙서가 가득

하다든지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든지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다든지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다든지 잡초가 무성하다든지 빈집이 방치되어 폐가처럼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장소가 여기저기 눈에 띄는 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사람들의 구역의식이 낮고 주인의식도 낮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립니다. 만약 구역의식이 강하고 주인의식도 높다면, 즉 좀 더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잡초가 무성하다든가 낙서가 가득한 것들이 방치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치되었다는 것은 범죄자로 하여금 ‘주민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범죄를 성공시키기 쉽고 범죄를 실행할 찬스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일본경찰 중에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가끔 ‘부서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브로큰 윈도우(Broken Windows)의 번역으로 깨어지든 부서지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서진 유리창으로는 이 이론의 참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창 부수기라거나 부서진 창과 같은 용어가 자주 쓰이는데 그것은 모두 침입목적의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유리가 부서졌다는 것은 침입을 위한 수단으로 창을 부순 것입니다. 그러나 브로큰 윈도우이론의 브로큰 윈도우는 침입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한 장난이 목적이지만 침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서진 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단계에서 ‘침입목적’이라는 뉘앙스가 풍겨져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깨진 유리창이며 단순히 유리가 깨져 있는 상태로 침입목적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파출소는 깨진 유리창 이론의 발상지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에서 생긴 것이지만 그 아이디어는 일본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약 20년 전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한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당시 미국의 학자들에게 일본의 안전성은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왜 선진국 중에서 일본만이 낮은 범죄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려고 많은 학자가 도전을 했습니다. 켈링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일본으로 조사를 왔을 때 파출소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시스템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미국에서도 범죄원인론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경찰의 일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파출소는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곳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파출소는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서포트하여 그 지역의 구역의식과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거점이었습니다. 즉 파출소는 범죄원인론의 실천이 아닌 범죄기회론의 실천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파출소 제도 자체는 미국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이론, 즉 지역의 빈틈을 경찰과 주민이 협력하여 금세 메워나간다는 정책은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유리창을 깬다는 행위를 디스오더(Disorder) 즉 ‘질서위반’이라고 합니다. 유리창을 깨는 것은 물론 범죄지만 이른바 전형적인 범죄의 이미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질서위반이라고 부릅니다.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방치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것 역시 질서위반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 질서위반을 매우 중시하고 이것을 방치하면 범죄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3) 뉴욕의 컴스텟(COMPSTAT)

뉴욕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도입된 것은 루디 줄리아니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미국 전역 그리고 유럽까지 확산되어 범죄기회론에서도 중심적인 이론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만큼 유명한 것으로 컴스텟이 있습니다<사진1>. 뉴욕 시경에서 윌리엄 브래튼(William Bratton) 본부장 재임시절에 도입되어 유명해진 것으로 현재 이것을 미국 각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컴스텟은 컴퓨터를 뜻하는 COM과 통계를 뜻하는 STAT의 합성어로 컴퓨터를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정도밖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컴스텟의 최대 목적은 깨진 유리창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운용방법으로서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좀 더 중요한 것은 각 부서장에게 구역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컴스텟의 목적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뉴욕 시경은 엄격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구조로 각종

업무를 수행 해 왔지만 컴스텟을 통하여 현장에 있는 서장에게 권한을 넘겨줌과 동시에 책임도 넘기는 형식으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부서장이 자신의 관할구역에 대한 구역의식과 주인의식을 높인다면 이것을 계기로 주민의 구역의식과 주인의식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휘관인 부서장부터 관할구역의 구역의식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컴스텟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진1> 컴스텟 회의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컴스텟의 실제 보고서는 매 주 제출되는 4, 5센티미터 두께의 방대한 양으로 거기에는 인지건수와 검거건수의 순위표가 범죄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9·11테러 이전은 주 2회, 9·11테러 이후는 주 1회 시경본부에서 컴스텟 회의를 갖은 후 본부장 앞에서 각 부서장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왜 범죄가 증가 했는가 혹은 반대로 줄어 들었는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부서장은 본부장에게 범죄사건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장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순위는 주, 월, 연 단위로 나뉘져 있습니다. 연간 건수의 순위

가 높아도 주간 건수 순위가 떨어졌다는 것은 작년은 범죄가 많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은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경쟁을 하는 것인데 좋은 의미에서 경쟁을 시켜 부서장의 구역의식과 주인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그것을 통한 주민의 구역의식과 주인의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찰은 점차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 즉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경찰활동이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경찰뿐만이 아니라 법원 역시 여기저기에 지역사회 법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사 역시 지역사회로 다가가 커뮤니티 프로시큐션(Community Prosecution)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미국 내에서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나 판사가 학교에 가서 비행방지교실 등을 열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씩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신이 구역의식과 주인의식을 갖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뉴욕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의 기본이 되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4) 영국의 ‘범죄 및 질서위반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질서위반입니다. 유리창이 깨져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일본에는 방치된 자전거가 참 많은데 이러한 지역의 조그만 틈들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그것을 바로 고친다면 그렇게 쉽게 범죄자가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질서위반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영국으로 전파되어 ‘범죄 및 질서위반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범죄법이 아닌 범죄 및 질서위반법입니다. 이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법률로 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없었다면 영국에서도 범죄법이라고 이름이 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해 질서위반이 클로즈 업 되었기 때문에 범죄 및 질서위반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은 당시까지의 형법과 만들어진 방법이 다릅니다. 형법은 사람이 어떠

한 행위를 했을 때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로 그 중심에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원인론입니다. 형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도 기본적으로 범죄원인론에 기반을 둡니다. 따라서 경찰은 검거를 중시하며 ‘검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여겨 왔고 범인을 검거하는 형사는 경찰의 꽃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범죄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은 크리미널 저스티스(Criminal Justice)를 번역한 것으로 크리미널이라는 것은 범죄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범죄자사법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 형사사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범죄자사법입니다.

당시까지의 범죄대책은 계속 범죄원인론에 기반을 둔,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기회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것은 잠재적인 피해자입니다. 즉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형법은 범죄자가 중심이지만 범죄기회론은 피해자가 중심입니다. 소위 말하는 형법상의 구성요건¹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규정은 없고 피해자가 두려워하거나 싫어한다든지 괴로워한다면 그 단계에서 개입하여도 좋다는 것이 영국의 ‘범죄 및 질서위반법’입니다. 갑자기 형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항상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을 때 이것을 알게 된 경찰관이 약식으로 주의를 주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2년 정도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불꽃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질서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한다면 이번에는 그 단계에서 형벌이 가해집니다. 질서위반명령에 대한 위반이 형벌을 구성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행정적으로 ‘금지’라는 경고를 1회 내리고 또 다시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범죄로 다룬다는 방식입니다. 영국의 ‘범죄 및 질서위반법’을 통해서 법률상으로도 범죄원인론에서 범죄기회론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 역주,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 ‘범죄 및 질서위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범죄 방지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범죄 방지에 힘쓰라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에 관련된 문제를 무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지자체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내무성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테크닉

이처럼 깨진 유리창 이론은 영역성과 감시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중시합니다. 이에 반해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 방법환경설계¹⁷⁾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방법환경설계와 깨진 유리창 이론이 범죄기회론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영역성과 감시성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항성, 영역성, 감시성이라는 범죄 방지에 필요한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향상시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좀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성과 감시성의 향상이 앞으로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역성과 감시성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여행 도중 화장실을 갔을 때 미국 화장실 칸막이문의 경우 그 밑에 틈이 조금 있습니다. 일본 화장실 칸막이문은 바닥까지 틈이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틈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발이 보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사용한 테크닉입니다. 일본의 칸막이문은 바닥까지 이어져 있어서 영역성은 높지만 일단 안에 들어가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문으로 영역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발이 보이도록 되어 있어서 감시성 또한 높습니다. 만약 칸막이 안에 발 네 개가 보인다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17) 역주, 건축 환경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로서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테크닉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II 장 지역안전지도 제작의 실천

1. 아이들의 안전과 마을 만들기

1) 지역안전지도란

영역성과 감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지역안전지도 만들기입니다. 지역안전지도란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역성이 낮은 장소, 감시성이 낮은 장소입니다. 또 한 가지 저항성이 낮은 장소에서도 범죄가 일어나기 쉽지만 이런 장소는 지도에 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성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죄자가 최종적인 타깃에게 다가갔을 때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아슬아슬한 국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인데 잠금장치가 된 도어 투 락이 아니고 또 창에도 보조잠금장치가 없는 집은 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또 집 전체를 장소로 생각해 볼 때 콘크리트벽이 있어서 영역성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감시성이 낮고 이러한 집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은 지도에는 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집을 표시한 지도를 복지회관 등에 게시하면 범죄자가 그것을 보고 ‘성공가능한 집이 있다, 다음에는 그곳을 노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안전지도에는 개인의 집 등 저항성에 관련된 것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이 지역안전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이 집은 표적이 되기 쉽다고 생각되어도 이것을 지도에는 실지 않고 비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에 살짝 꺼내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도에 실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영역성과 감시성에 관한 것, 즉

공공의 장소에 대한 것들뿐입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는 영역성이 낮은 장소와 감시성이 낮은 장소이기 때문에 지역안전지도는 주민들 스스로가 길을 걸으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영역성이 낮은 장소와 감시성이 낮은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이들 스스로 만들게 하는 중요함

1) 저항성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지역안전지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 지도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저항성에 관련된 것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방법부저는 저항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범죄자가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포인트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중 경찰관이 학교에 찾아가는 방법교실은 범죄자가 손을 잡으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뿌리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종의 호신술교육인데 이것 역시 저항성에 관한 것입니다. 혹은 NPO¹⁸⁾에 따르면 큰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기도 한하지만 이것 역시 결국은 범죄자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저항성에 관련된 방법입니다. 모두 가장 마지막에 동원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부저도 호신술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일본의 지자체는 방법부저에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신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아이들이 갑자기 공격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대로 방법부저를 울릴 수 있을까요? 어느 방법회사에서 여성들에게 몇 주 전에 방법부저를 건네주고 갑자기 습격했을 때 얼마나 방법부저를 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 울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어린이인 경우에 울릴 수 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겠죠. 게다가 방법부저를 울려서 오히려 범죄자를 흥분시켜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범죄를 일으킬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반격을 당하여 발끈하거나 혹은 범죄자 자신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서 폭력을 휘두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도 상당수 보입니다. 또 처음부터 피임에 빠져서 범죄자를 따라가게 된 경우에

18) 역주, 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제3섹터 또는 시민사회조직이라고도 한다.

는 방법부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쓸모가 없어 집니다.

2) 지역이라는 이름의 성(城)으로 지킨다

이처럼 저항성의 방법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선조들은 영역성과 감시성을 확실히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인물인 영주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영주를 지키기 위해서 가신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성의 혼마루(本丸)¹⁹에 영주를 모시고 안전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 성을 보게 되면 영역성과 감시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영역성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성을 지을 때 해자를 외부, 가운데, 내부에 몇 겹으로 만들고 도로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구불구불하게 지나가야 겨우 혼마루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직선코스도 혼마루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돌계단도 한 걸음 반 정도의 간격으로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한 걸음 간격으로 만들면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한 걸음 반이면 뛰어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중에 발을 헛디디게 됩니다. 돌계단의 간격도 도중에 넓거나 좁게, 높이도 높거나 낮게 되어 있어 영역성을 높인 것입니다.

히메지성(姫路城)²⁰도 매우 잘 만들어진 성입니다. 히메지성은 도중에서 길이 두 개로 나뉘져 있습니다. 혼마루까지 가는 도로가 한 쪽은 위로 가는 길, 반대 쪽은 내려가는 길로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혼마루로 가려면 위쪽이겠지.’라고 생각하여 위쪽으로 가면 막다른 곳이 나옵니다. 일단 내려가지 않으면 혼마루까지 갈 수 없게 만들어져 매우 높은 영역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성은 감시성 또한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혼마루에서는 멀리까지 내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는 활이나 총을 쏠 수 있는 작은 창이 있는데 이것은 넓은 각도로 볼 수 있게 광각적(廣角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각

19) 역주, 성(城)의 중심이 되는 건물.

20) 역주, 히메지성(姫路城)은 17세기 초에 방어 체계를 갖춘 성곽으로 만들어졌으며, 총 8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건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높은 석조 토대, 망루, 요새화한 통로, 그리고 누벽 등은 히메지성이 난공불락의 방어 진지로 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묘한 심리전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문이나 성벽, 외벽의 배치는 적으로 하여금 혼마루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빙빙 돌며 방향 감각을 잃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그 외중에 공격하는 측은 자연히 위에서 수비하는 측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지대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활이나 총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적의 입장에서는 작은 창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시성을 높였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며 하는 것은 방법부저를 주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만약 옛날로 치자면 가신이 영주를 지키기 위한 성은 전혀 쌓지 않은 채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적에게 대항하기 위한 칼을 건네며 ‘적이 공격해 오면 이것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이들에게 방법부저를 주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은 쌓지 않은 채 적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이 공격해 오면 이것을 사용하세요.’라며 옛날에는 칼을 건네줬다면 지금은 방법부저를 주는 것입니다.

네야가와 사건(寢屋川事件)²¹⁾ 이후 방검조끼가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칼과 같은 흉기가 관통하지 않는 조끼입니다. 이것은 옛날로 치자면 성은 쌓지 않은 채 영주에게 갑옷을 건네고 ‘이것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이란 이름의 성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성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 안에 있으면 방법부저도 호신술도 필요 없단다. 하지만 성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간다면 방법부저와 호신술을 사용하게 될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른단다.’라는 개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성 안이고 어디가 밖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것을 구분해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지역안전지도 제작입니다.

21) 역주, 2015년 오사카 부(大阪府) 네야가와 시(寢屋川市)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17세의 소년이 모교인 네야가와시립 중앙초등학교에 침입하여, 흉기를 휘둘러 교사 1명을 살해하고 영양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

3. 지도 제작의 실천

1) 사전 학습

학교 수업시간에 지역안전지도 제작을 하는 경우, 우선 아이들에게 어떤 장소가 위험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위험한 장소란 영역성과 감시성이 낮은 장소인데 초등학생에게는 이해하기 쉽도록 ‘들어가기 쉬운 장소’나 ‘잘 보이지 않는 장소’가 위험한 장소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나 ‘잘 보이는 장소’는 안전한 장소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누구나 ‘들어가기 쉬운 장소’에서는 범죄자도 의심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쉽다는 것은 도망가기도 쉽다는 것이므로 들어가기 쉬운 장소는 범행 후에 바로 어디로든지 도망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는 범죄자가 몰래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잠복하고 있어도 잘 모릅니다. 또 범행이 발각되기 어려운 곳도 ‘잘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다음으로 6명 정도의 인원으로 반을 편성합니다. 반장과 부반장 사진담당, 지도담당 인터뷰담당과 같이 역할도 나눕니다. 사진담당은 위험한 장소나 안전한 장소를 카메라로 찍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사람의 얼굴이나 집 안이 찍히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자신들의 얼굴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찍지 않도록 합니다. 지도담당은 위험한 장소나 안전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사진을 촬영한 지점이나 인터뷰를 한 지점을 지도에 기록하는 것도 지도담당의 몫입니다. 인터뷰담당은 지역주민에게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장소가 있는지 묻고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반마다 담당지역을 정하는데 담당하게 될 조사지역은 피해방지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학교 주변의 모든 장소를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반이 같은 지역을 조사해도 상관없습니다.

2) 마을 탐험

교실에서 이뤄지는 사전 학습이 끝나면 다음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필드워크(

Field Work)입니다<사진2>. 이 때 ‘지역안전’이나 ‘방범’이라고 쓰여진 완장을 달고 다니면 사고방지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 주민들의 방범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도 지도 제작에 참가하여 아이들과 동행할 수 있다면 지역의 구역의식이나 주인의식도 크게 향상될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진2> 거리걷기



아이들은 영역성과 감시성에 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신들의 눈으로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공원은 ‘들어가기 쉬운 장소’로 나무나 풀 때문에 놀이기구가 보이지 않는 공원은 ‘잘 보이지 않는 장소’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드레일이 없는 도로는 ‘들어가기 쉬운 장소’이며 가로등이 적은 도로는 ‘잘 보이지 않는 장소’가 됩니다.

영역성과 감시성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질서위반행위의 결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질서위반행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낙서, 쓰레기 투기, 자전거 방치, 잡초가 무성히 자라 관리가 되지 않은 장소 등입니다. 사람들의 구역의식이나 주인의식이 높다면 이러한 질서위반행위가 방치될 리가 없기 때문에

방치된 상황을 보고 구역의식과 주인의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낙서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다면 그곳은 구역의식이나 주인의식이 낮은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범죄자도 경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기 쉬운 장소’입니다. 또한 무관심한 사람이 많고 아는 사람도 적은 곳은 ‘잘 보이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을 거야.’, ‘들킨다고 해도 신고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범죄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동 안전 지킴이집’이 많이 설치됐다거나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주민이 많다면 그곳은 구역의식이나 주인의식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민들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는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이며 주민들끼리는 서로 낮이 익은 관계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3) 지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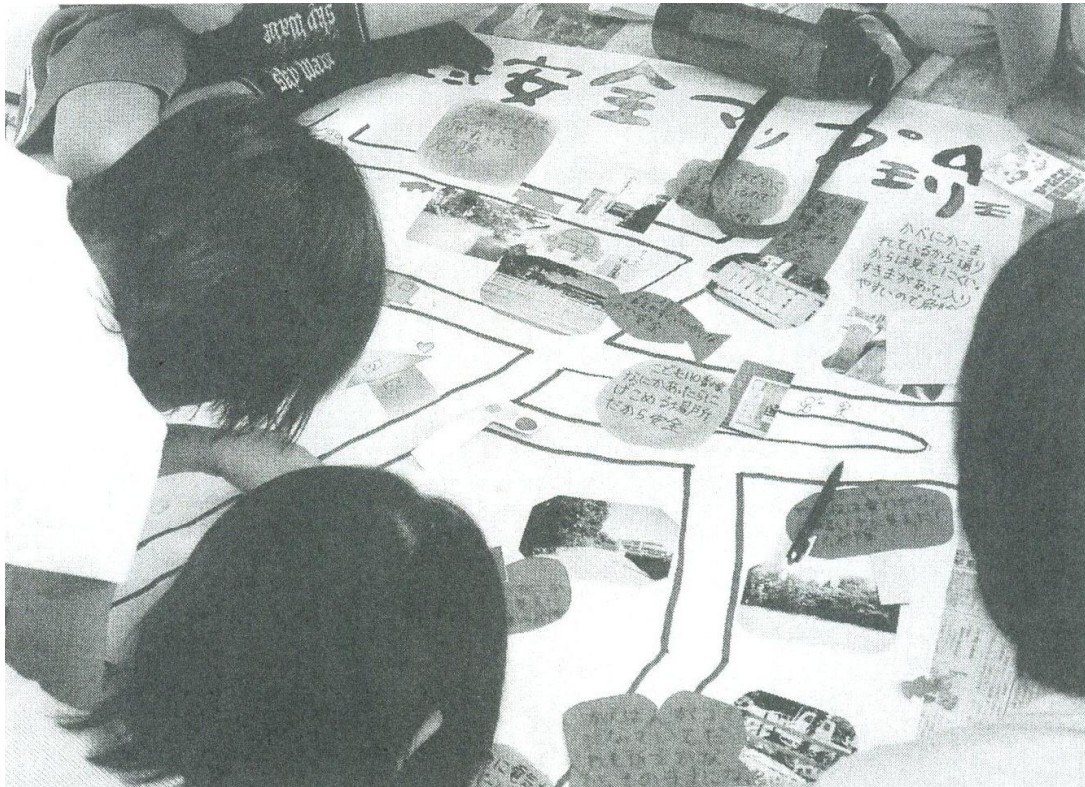
이처럼 마을 탐험을 끝냈다면 거리를 걸으면서 본 것을 지역안전지도로 정리를 합니다. 우선 큰 모조지에 도로나 건물 등을 그립니다. 거기에 인화한 사진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말풍선 등을 이용하여 코멘트를 적습니다<사진3>. 코멘트의 내용은 그곳이 위험한 이유를 ‘들어가기 쉽다’라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지역안전지도가 완성되면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회에 아이들의 보호자나 지역주민이 참가한다면 지역전체의 구역의식이나 주인의식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험학습을 실시하면 아이들은 어떠한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한 도로와 안전한 도로가 있는 경우 안전한 도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길로 갈 수 밖에 없을 때에도 혼자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위험한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위험하다는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욱 신경써서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역안전지도 제작은 아이들의 피해방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것 이

외에도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지역을 탐험하고 다양한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점점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인터뷰를 하며 이곳에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진 아이들은 장래에 지역 리더로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진3> 지도제작



또 친구들끼리 시끌벅적하게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대화를 나누며 작업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어른들과 인터뷰를 하며 윗세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설득이나 교섭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어 자신의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일지라도 지역의 안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계기로 아이들은 성취감이나 성공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행 방지로도 이어집니다.

4)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대책으로

또한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이 만드는 지역안전지도의 제작과정을 본다가나 제작에 협력하게 된다면 아이들을 지역 전체가 지키고 있다는 의식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즉 지역안전지도 제작은 지역 전체가 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꽤 오래 전부터 “지역안전지도를 제작합시다.”라고 호소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곳저곳에서 ‘지역안전지도’이라는 단어만은 꽤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단어가 알려지며 ‘이웃 학교에서 지역안전지도를 만든 것 같으니 우리 학교도 만들어 보자.’라거나 ‘옆 지자체에서 지역안전지도 제작을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보자.’는 기분으로 지도제작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말도 안 되는 지도가 제작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엉뚱한 지도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지역안전지도 제작 전문과정

작년 도쿄에서 지역안전지도 경진대회란 것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모든 지역안전지도를 보게 되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도가 가득했습니다. 관계자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역시 그저 “지도를 만들자”는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며 반성했습니다. 우선은 올바른 제작방법을 보급한 후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면 몰라도 갑자기 경진대회를 하겠다며 지도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쿄에 ‘지역안전지도 교실’이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지도자들로부터 올바른 지도 제작을 배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 지도제작을 가르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사진4>.

이 지역안전지도 교실은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경찰인 학교지킴이, 교육위원회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지자체의 방법담당직원 등이 함께 하루 동안 연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조직인 행정, 경찰, 학교관계자들이 모두 같이 거리로 나가서 마을을 걷고 돌아온 뒤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지역

안전지도를 만들고 서로 발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안심 지역 만들기를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파트너십’이란 말을 흔히들 쓰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이 가끔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조직이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경 쓸 뿐 조금도 생산적인 논의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지역안전지도 교실은 하루 종일 같은 동료로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날 때쯤에는 다들 사이가 좋아져 있습니다. 행정, 경찰,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다음 단계부터는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진4> 지역안전지도 제작 전문과정



6) 잘못된 제작 방법

그런 그렇다치고 지역안전지도 경진대회에 출품되었던 말도 안 되는 지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좋지 않은 예로 수상한 사람 표시 지도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저 공원에는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로에 수상한 사람 세 명이 있었습니다.’와 같은 지도인데 이와 같은 지도가 매

우 많았습니다. 출품된 수상한 사람 표시 지도 중에는 수상한 사람을 핀으로 나타내서 입체지도로 만들어 놓은 지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곳저곳에 수상한 사람이 많이 있는지 궁금하여 물어보니 대체로 지도에 등장하는 수상한 사람은 세 가지 패턴을 보였습니다. 바로 노숙자, 외국인, 지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수상한 사람으로 보고 지도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별을 조장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지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나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 표시 지도에는 ‘수상한 사람을 주의합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애당초 수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으신가요? 어떤 기준으로 수상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관들 역시 쉽게는 알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 질문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조금씩 수상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상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프로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들에게도 쉽지 않은 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물어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꽃가루가 심할 때는 여기저기에 수상한 사람들로 북적이게 됩니다. 이 지도는 그 정도의 교육 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풍기며 접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수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사전에 어떠한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제작의 시작은 장소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상한 사람을 주의합시다.”라는 말을 듣는데 “그게 뭔데?”라고 물으면 “그건 어른을 무시하라는 거예요.”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을 무시해라.’, ‘어른을 믿지 마라.’, ‘사람을 보면 납치범이라고 생각해라.’라고 생각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니가타 현(新潟県)에 갔을 때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애완견이 행방불명 되어 주인인 할머니가 차를 타고 개를 찾으러 시가지로 나갔습니다. 하교 중이던 아이

들에게 “우리 개 못 봤니?”라고 물어 봤지만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순찰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라고 묻자 아이들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수상한 사람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가 아우러지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이라는 기조는 모두가 내걸고 있지만 결국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지역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일들뿐입니다.

자기는 수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는데도 과연 이 할머니는 위급한 상황에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요?

어른도 어른 나름대로 수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 싫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나가와 현(神奈川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하고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잘못해서 방범부저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큰 소리가 났지만 멈추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란 이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그대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까지 어른들은 아무도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방범부저가 울리고 있어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면 자신이 수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주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범죄원인론의 폐해입니다. 범죄원인론은 범죄자에게 주목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만든다 해도 그 지도에는 범죄자나 수상한 사람에 대한 것을 꼭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역안전지도는 범죄기회론에 기반을 두고 고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인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것은 장소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상한 사람을 조심하자.’는 말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합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인사하기 운동을 추진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어른을 무시해야 하는지 인사를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장소에서 위험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어른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어른, 즉 영역성과 감시성이 낮은 들어가기 쉽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른이 길을 물어오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나도 좋습니다. 아주 상냥한 얼굴을 한 형이나 오빠라고 하여도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 안전한 장소에 있는 어른에게는 인사를 합시다. 곤경에 처한 어른이 있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줍시다. 이와 같은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아닌 장소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꿴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나 장소가 중요하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소에 주목한 지도를 만듭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지도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발생지도라는 것으로 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표시한 것입니다. 지역안전지도는 앞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쉽고 일어날 것 같은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범죄가 발생한 장소만 표시한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경찰이 발표한 것들입니다. 경찰이 하는 일은 범죄자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최초에 어디 있었는가에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발생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일은 범죄자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범죄가 발생했는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어디에서 범죄가 발생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장소를 주의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역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경찰과 같은 지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7) 아이들을 상처 입히지 않으려면

아이들에게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모두 암기하게 만드는 범죄발생지도가 많은 것 같은데 만약 이것을 전부 암기한다 해도 그 외의 장소에서는 방심해버리게 됩니다. 범죄발생지도로는 위험한 장소를 구별하는 힘이나 범죄가 발생할 확률에 따라 주변에 대한 긴장을 높이거나 낮추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즉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낯선 장소에 갔을 때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범죄발생지도를 학교에서 만드는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가 범죄발생지도를 만들 때에는 우선 경찰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도 모든 데이터를 다 주진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학교는 아이들에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묻게 됩니다. 군마 현(群馬縣)에서 들은 이야기로 피해를 겪은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아이가 대답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그 어머니가 다음날 학교에 전화를 걸어 “겨우 피해에 대해서 잊을 만하게 됐는데 또 아이의 기억을 끄집어낸 탓에 우리 아이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가위에 눌렸단 말입니다. 뭐가 안전입니까. 웃기지 말아요.”라고 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일은 크나큰 트라우마이며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악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 바람직한 지도 제작 과정

사이타마 현(埼玉縣)의 어느 지자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앙케트 조사용지를 나눠주고 ‘자신의 피해체험을 써 주세요. 앙케트를 통해 모은 정보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앙케트를 받은 피해학생들의 부모가 지금 변호사협회를 통해 이것을 인권침해라고 하며 인권침해구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다시 희생양으로 삼고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고 피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면 대부분의 범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기억은 하루라도 빨리 잊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음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간사이(關西)²²⁾ 지방에서 할 때면 모두 깜짝 놀랍니다. ‘간토(關東)²³⁾ 지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라고 하면서요. 간사이

22) 역주, 일반적으로 교토 부(京都府), 오사카 부(大阪府)의 2부와 시가 현(滋賀縣), 효고 현(兵庫縣), 나라 현(奈良縣), 와카야마 현(和歌山縣), 미에 현(三重縣)의 5현을 포함한다. 때때로 후쿠이 현(福井縣)과 도쿠시마 현(徳島縣)을 포함하기도 한다. 메이지 유신으로 도쿄(東京)로 천도(遷都)되기까지 명실 공히 일본의 중심이었다. 정치·경제의 중심이 간토 지방으로 옮겨진 현재도 서일본의 핵심 지역이며 일본의 전통적인 역사·문화 중심지이다. 최대 도시는 오사카 시(大阪市)이다.

지방에서는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적이 있어서 아이들의 겪은 피해담을 꺼내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따라서 아이들로부터 피해에 대한 경험을 듣는 행동은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안전지도 제작은 과거의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의해야 할 장소를 찾는 것과 같이 미래지향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래지향적인 지도라고 해도 아직 실패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평소 무섭다거나 싫다고 느끼고 있는 장소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도는 수상한 사람 표시 지도나 범죄발생지도와 비교한다면 실패할 위험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이들의 피해방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무섭다고 느끼는 장소에서는 아이들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단순히 지도에 넣는 것만으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다니던 길이었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길이었다. 앞으로는 조심하자.’라거나 ‘지금까지는 혼자서 놀았던 공원도 실은 위험한 공원이었으니 앞으로는 다른 공원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도의 제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맨 처음에 ‘들어가기 쉽다’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이것을 자신의 지역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 피해방지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발견하는 ‘깨달음’의 과정이야말로 피해방지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9) 사건에서 얻는 교훈

나라에서 납치살인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아동이 다녔던 학교에서도 지도는 제작됐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의미로 실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제작의 첫 번째 실패 요인은 그 지도는 어른이 만든 것이었고 아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만들고 예쁘게 인쇄하여 아이들에게 나눠줘도 아이들은

23) 역주, 일반적으로는 도쿄 도(東京都), 이바라키 현(茨城県), 도치기 현(栃木県), 군마 현(群馬県), 사이타마 현(埼玉県), 지바 현(千葉県), 가나가와 현(神奈川県) 등 1도 6현(1都6県)을 가리킨다. 일본 수도권 도쿄를 둔 간토 지방은 일본의 정치·경제의 중심이고, 일본 총인구의 3분의 1이 집중되어 있다.

아마 꼼꼼히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흥미가 없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어른들이 지역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피해방지 능력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발로 걷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험한 장소를 피하거나 주의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자신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모두가 협력하여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피해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지역안전지도를 제작하려 한다면 아이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지도 제작을 도와주기 위한 훈련으로서 혹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리를 개선하기 위한 현상 파악으로서 지역안전지도 제작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 제작에 대한 실패요인 중 더 중대한 두 번째 요인은 제작한 지도에서 주로 다른 내용이 수상한 사람 표시 지도와 범죄발생 지도를 혼합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치될 위험이 있는 장소도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 습니다. 왜냐하면 납치되었던 장소에서 그때까지 범죄가 일어난 적이 없었으며 수상한 사람이 나타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사건을 보면 사건 직후 텔레비전 방송의 리포터가 “이처럼 차의 왕래가 많은 간선도로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라는 내용을 보도했었지만 명백하게 범죄기회를 모르는 리포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납치 현장은 틀림없이 영역성과 감시성이 낮고 들어가기 쉽고 잘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사진 5>. 간선도로라는 곳은 자동차를 사용한 범죄자에게 있어 매우 편리한 장소입니다. 들어가기 쉽고 도망치기 쉬운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양쪽에는 집이 한 채도 없어 인도 쪽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옆쪽에 아파트가 있었지만 공사로 인해 아파트 앞으로 가림막이 쳐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납치장소의 양쪽에는 가리개가 될 수 있는 방호용 금속판이 설치되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사실 그 범죄자는 그날 오전에 오사카 부(大阪府)의 야오 시(八尾市)로 가고 있었습니다. 야오 시에서 아이들을 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주지인 나라로 돌

아왔습니다. 야오 시는 오사카에서도 드물게 아이들에 의한 지역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에 반해 오사카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지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야오 시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마을을 걷고 손수 지도를 만들고 있는 지자체였지만 나라는 어른들이 수상한 사람 표시 지도를 만든 지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5> 나라 유포사건 현장



이처럼 대부분의 범죄는 ‘들어가기 쉽다’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 20년에 걸쳐 만들어낸 범죄 기회론의 연구의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지역 사람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도 제작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의원 여러분이 지역의회에 가서 질의시간을 가질 때 “지역안전지도 제작은 효과가 있으니 시행해 봅시다.”라고 말씀하시면 교육위원회는 “아니 이미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들어진 지도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작된 지도라고 제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상한 사람지도와 범죄발생지도일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이 “이것은 이러한 이유로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한다면 교육위원회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지적을 통해 바른 지도 제작방법을 보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은 단순히 안전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과 웃음이 넘치는 지역 만들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병태(2015),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신현기 외 4명(2012), 『경찰학사전』, 법문사
오경순(2010), 『번역투의 유혹』, 이학사
최기남 외 2명(2010), 『여성 아동대상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서』, 진영사
EBS아동범죄 미스터리의 과학 제작팀(2010), 『왜 아이들은 낯선사람을 따라갈까』, 지식채널
STEPHEN BROWN 외 2명 저, 황의갑 외 12명 역(2011), 『범죄학』, 그린

2. 인터넷 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

<http://www.nobuokomiya.com>

日本語抄録

「犯罪に強いまちづくりの理論と実践」は、どうすれば効果的・効率的に地域の安全が構築できるのかについて書かれている。本書は、序章を含めた5章で構成されているが、今回の論文では、犯罪防止の理論と実践について書かれている序章、第1章、第2章を翻訳した。

序章は、最近日本で子供を対象にした犯罪が増えているため、犯罪を防ぐためのパトロールと地域安全マップ作りの大事さ、そして正しいパトロールと地域安全マップ作りの方法について説明している。第1章では、欧米で安全安心まちづくりのため、経てきた過程とその過程に基づいて犯罪防止のため、どのような理論と法律が適用され、変化してきたのかについて説明している。第2章は、第1章で扱った理論に基づいて、地域安全マップの正しい作り方について説明している。また、間違った制作方法で作られた地域安全マップの例と地域安全マップの正しい制作方法を具体的に記述し、地域安全マップ作りを通じて犯罪予防のあり方について提示している。